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힘!



1958년 생
국제홍보회사(버슨-마스텔라)한국지사 근무
1993~1999 세계 오지 여행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UN CERF) 자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저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그건, 사랑이었네》, 《1g의 용기》 외

인터뷰 당일, 약속한 인터뷰 시간이 한 시간 늦어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를 지하철에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오느라 하루종일 빼곡한 스케줄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고 한다. 세계 오지여행 경험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에게 (바람의 딸)로 알려진 그녀는 현재 일년의 절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절반은 국제구호 전문가로 활동하며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이다.

Q. <변화와 도전>의 아이콘, 한비아선생님의 최근 근황을 소개해주십시오.

A. 지난해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풀타임 박사과정에 있고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구호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구호현장에서 일하는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시리아에 다녀왔습니다. 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6년째 맡고 있습니다. <좋은생각>, <중앙일보> 및 <성서와 함께> 등에 글을 쓰고, 교도소,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Q.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평화를 만드는 100인, 2014년 '차세대 리더 100인' 등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외부의 시선 중에서 마음이 뿌듯한 수사가 있습니까?

A. '팀장님' 하면 갑자기 현장 냄새가 나고 동지애가 생기면서 듣기 좋습니다만,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누나', '언니'입니다. 저는 반 발짝 앞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피 흘리고 땀 흘리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958년생인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저를 '팀장님'으로,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누나', '언니'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Q.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을 통솔하는 리더로서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A. 어떤 집단에서든 리더만큼 똑똑하지 않은 구성원이 없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리더는 공감하는 리더입니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입니다. 두 번 듣고 한번 말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말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리더가 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때와 모를 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Q. <한비아>를 떠올릴 때 <용기>라는 단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용기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A. 하자는 마음과 하지말자는 마음이 50:50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용기를 조금만 보태면 하자는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1g의 용기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한비야 누나·언니가 앞으로 용기를 무한 리필 한다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1g의 용기가 필요할 때, 서로 1g씩의 용기를 주고받기로 지금 이 순간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Q. 세계여행이 구호활동의 모티브가 된 것인가요?

A.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지 않았다면 구호활동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한 것도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보고 세계 일주를 했고, 국제홍보업무를 한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자고 결심해서 2011년부터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딸'로 처음 알려지게 되어, 많은 분이 제가 긴급구호 활동을 15년 동안 한 것은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까지 15년간 긴급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Q. 베스트셀러 작가, 오지 여행가, 국제구호활동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 여러 직업을 두루 경험한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꼈습니까?

A. 각각의 일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5년간 진행해 온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일입니다. 여행은 혼자 다니며 혼자 즐거운 것이지만,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일은 저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좋습니다. 긴급구호 활동을 다녀오면 해외 현장에 다녀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곤 했습니다. 파키스탄 지진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마치고 발가락까지 부러진 채 절뚝거리며 돌아와 늦은 밤에 방송한 적이 있는데, 받아 적지 못할 정도로 후원전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부를 하겠다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방송에서 제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자극을 해서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교육을 통한 실천이었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세계시민학교를 세웠습니다. 2007년에 시작할 때는 연간 교육받는 사람이 5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들이 세계시민학교를 통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10년간 일할 계획이며, 이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Q.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A. 구호활동 초기 아프가니스탄 구호현장에 갔을 때는 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모술> 지역에 있었는데 앞서 가던 차가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사망한 인도네

시아 쓰나미 현장에서는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 모르는 시체 사이를 헤매며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 아프리카 말리에도 갔습니다. 구호활동을 하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 프로그램이 다 중지되는지라, 가장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는 군인들보다는 NGO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위험한 직업이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즐겁고, 자유롭게, 이왕이면 남을 도와주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저한테는 구호활동입니다.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하겠지요.

Q. 남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는지요?

A. 저에게 어떻게 인세를 몇억씩 기부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질의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근육을 조금씩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길거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조금씩 '돕는 근육'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철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연습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일기쓰기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큰 결심을 할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기를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스프링노트에 볼펜을 꽂아두어 언제든지 바로 일기를 쓸 수 있는, 본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일기쓰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한비야의 일기장 앞뒤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비야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비야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Q. <한비야>선생님을 멘토로 삼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A. 제가 다른 사람의 멘토라고 생각하면 조금 괴롭기도 합니다. 멘토는 많이 알고 있거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저는 기어서 딱 반 발자국 먼저 간 다음 제가 본 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어떠한 말을 듣고자 오는 친구들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제 인생 전반의 멘토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멘토는 저를 알아봐 주고 구

호활동으로 이끌어 주신 오태식 전 한국 월드비전 회장입니다. 패션, 요가 등 어떤 한 분야별로 멘토는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고 싶다는 의미의 멘토는 제겐 없습니다. 그런데 멘토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의 의미라면, 제 멘토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글밭, 말밭을 주신 분, 그리고 언행일치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든 세 가지, 일기를 쓰고, 산에 다니고, 세계지도를 바라보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Q.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람들은 정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가 있다고 한들 그 두려움에 우리가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20대에 했던 고민을 지금의 청년들도 할 텐데, 직장이 없든 청년들에게 세상이 더 낫다고 하고 험하고 견뎌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 하기 싫은 일과 힘든 일을 견디고 버티는 용기, 그리고 마침내 해내는 용기, 제가 그 용기를 어떻게 냈는지를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Q. <오피니언 리더>를 보면 그를 길러낸 어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언급하였는데, <한비아>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A. 아버지는 제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갈등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의 아버지는 사춘기를 겪기 전 제 영웅이었던 분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어떤 것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진 이후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한마디 하시고, 대학에 다시 입학하기 전까지 6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대학에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동안 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늘 저를 지지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제게 ‘딴지’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Q. 사회의 각 방면에서 갈등이 만연해있는 요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 언론이 갑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매체도 많이 늘었고 갑과 을로 나뉘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 년에 통상 약 3천 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니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회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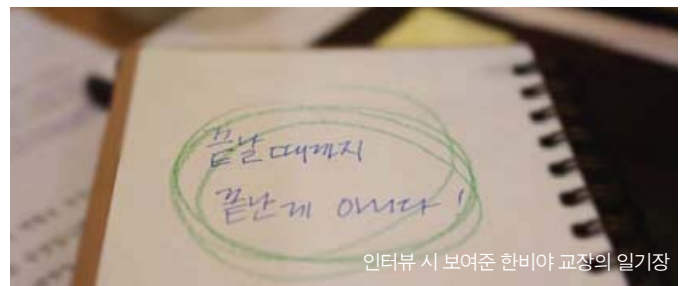
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보도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준 사법기구입니다. 혹시 <한비아>선생님이 당장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 해결하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언론기사가 있었습니까?

A. 제가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제 말이 왜곡된 경험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많아서 ‘좀 너무하잖아?’ 정도의 느낌이 든 적은 있었습니다. 일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많은 인터뷰 내용 중 굳이 특정 내용만 부각한 사례가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먼저 전화로 설명해서 이해 하고 넘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으면 된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제가 언행일치, 표리동동(表裏洞洞)을 실천하면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Q. <한비아>선생님의 지면 인터뷰를 접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준다면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 영향력, 재능,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쓸 것인지 늘 정신을 차리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일기장에 쓰는 글귀처럼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 보여준 한비아 교장의 일기장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